

대강절 첫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sup>ST</sup> SUNDAY OF ADVENT

주후 2021년 11월 2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01 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새 8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5 번 강림절(Advent) 1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마태복음(Matthew) 1:18-23</b>	조희연 집사
찬 양 Anthem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찬양대
설 교 Sermon	<b>“이름을 예수라 하라”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예수 그 이름”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102 장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새 9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고,

하나님의 뜻 보다는, 우리의 죄된 생각과 욕망을 좇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려지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했던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전 10:31)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한글개역 마1:21)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NIV Matthew 1:2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28 (주일)	11/29 (월)	11/30 (화)	12/1 (수)	12/2 (목)	12/3 (금)	12/4 (토)
	대상24,25	대상26,27	대상28	대상29	대하1	대하2	대하3,4
본문	벧전5	벧후1	벧후2	벧후3	요일1	요일2	요일3
	미3	미4	미5	미6	미7	나1	나2
	눅12	눅13	눅14	눅15	눅16	눅17	눅18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2/1, 오후7:30)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삿7:9-18)
토요 새벽기도회 (12/4 오전6:30)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62:1-12)

지난 주일(11/21, 추수감사주일) 말씀

전도의 8 가지 습관 (8) –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1-7)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참고 살전5:16-18)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갑자기) 좋아져서, 우리가 (저절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감사가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일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1)첫째,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2)둘째,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는 우리가 그 뿌리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3)셋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이 차곡차곡 채워져야만 (비로소)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마12:34)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자주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성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사람의 내면에 (이미)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가득 채워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참된 감사의 사람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